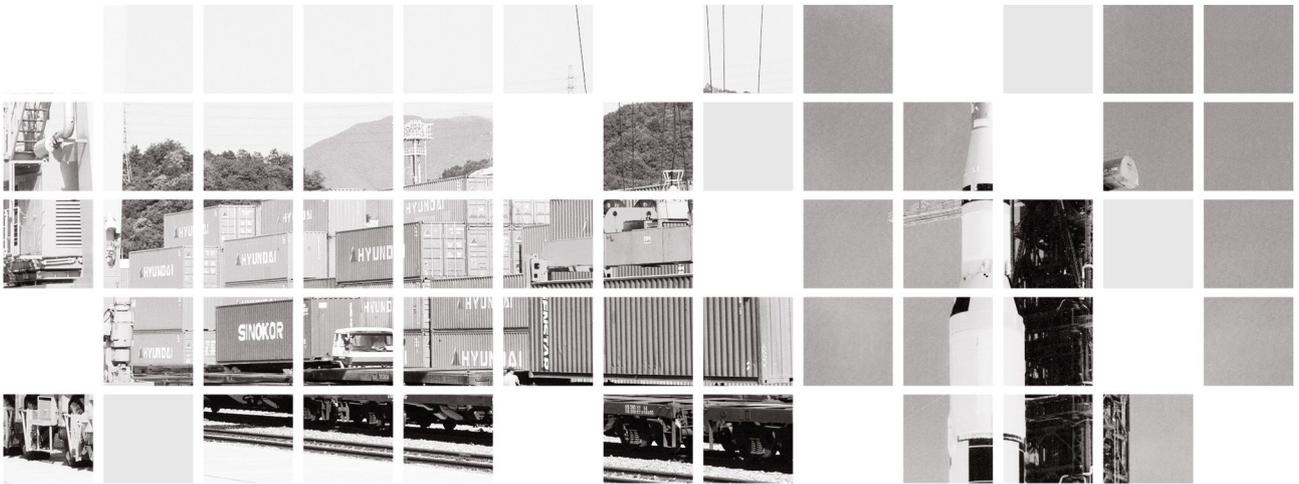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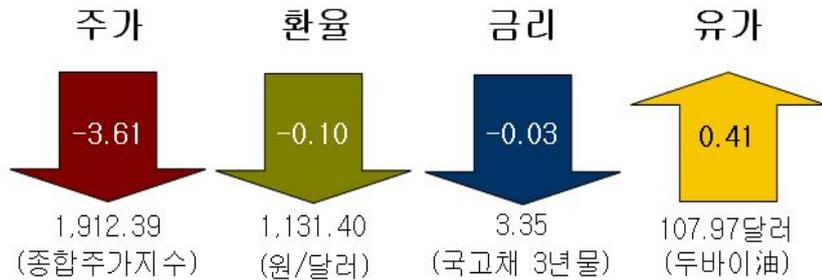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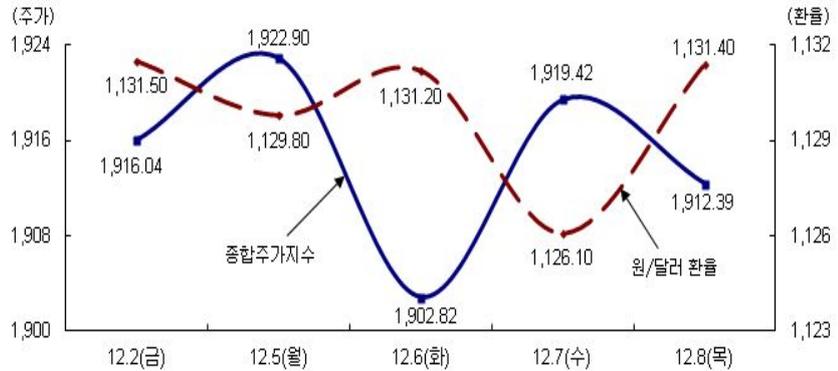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2~12.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최 성 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김 동 빈 연구원 (2072-6215, db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

2011년 1~10월 청년 실업자는 32.4만 명에 불과한 반면,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까지 포함하는 사실상실업자는 110.1만 명에 이른다. 실업률은 7.7%지만, 사실상실업자를 반영한 체감실업률은 22.1%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의 체감도를 높이고 좀 더 정교한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식 실업률과 더불어 체감실업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청년 체감실업의 특징 분석

(정의) '사실상실업자'란 장·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물론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자를 포함한다. **사실상실업자(협의)**는 실업자+구직단념자로 정의하고, **사실상실업자(광의)**는 사실상실업자(협의)+취업준비자+취업무관심자로 정의한다.

(사실상실업자 100만, 체감실업률 20% 시대) 청년 실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사실상실업자(광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자는 2003년 40.1만 명에서 2011년 32.4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사실상실업자(광의)는 99.0만 명에서 110.1만 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에 따라 체감실업률(광의)은 17.7%에서 22.1%로 4.4%p나 상승하였다.

(성별) 2011년 청년 남자의 체감실업률(광의)은 24.7%로 여자 19.6%보다 5.1%p 높다. 남자는 여자보다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가 많은 반면 추가취업희망자는 더 적은 것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보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는 남자보다 여자의 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남자 실업자수는 2007년 20.0만 명에서 2011년 18.2만 명으로 줄었으나, 여자는 12.7만 명에서 14.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고 및 채용에서 여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20대 초반(20~24세)과 20대 후반(25~29세)의 체감실업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03년 20대 초반과 후반의 체감실업률(광의)은 각각 21.1%, 13.9%로 격차가 7.2%p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28.5%와 18.0%로 격차가 10.5%p로 확대되었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는 20대 초반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20대 후반의 체감실업률(광의)은 2007년 17.5%에서 2011년 18.0%로 소폭 상승한 반면 20대 초반은 24.0%에서 28.5%로 급등하였다.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초년생인 20대 초반이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학력별) 고졸 이하의 체감실업률(광의)이 대졸 이상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대졸 이상의 체감실업률(광의)은 2003년 18.3%에서 2011년 21.6%로 소폭 상승한 반면, 고졸 이하는 16.8%에서 23.7%로 급등하여 대졸 청년을 앞질렀다.

한편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의 고용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고졸 이하의 체감실업률(광의)은 2007년 21.0%에서 2011년 24.5%로 상승하였고, 특히 재학생을 제외한 고졸 이하는 20.0%에서 24.3%로 악화되었다. 대졸 이상은 19.9%에서 21.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졸 청년들이 더 많이 해고되어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시사점

청년 중 사실상실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체감실업률이 22.1%에 이르는 만큼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사실상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는 당장 취업할 의사가 있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반면 취업이나 직업훈련, 학업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는 취업무관심자에 대해서는 취업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직업체험이나 직업훈련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경제위기 때에는 평소와 다른 청년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체감실업이 심각하나, 경제위기 때에는 여자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해고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 차별을 시정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사실상실업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실상실업자 중에서도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는 취업의사 및 취업가능 정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보조지표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1. 청년 체감실업 분석의 필요성

○ 현재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음

-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청년 실업률은 6.7%로 매우 낮은 수준
 - 국제기준인 통계청 실업률만으로 판단할 때, 청년들은 미국發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고용 한파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배제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 정도와 커다란 괴리가 존재

○ 사실상실업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지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2010년 1월 정부는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추가취업희망자를 포함하는 ‘취업애로계층’을 발표하면서, 이들과 포함하는 실업대책 마련을 약속
 - 그 후 수차례 현실을 반영하는 보조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조지표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보조지표는 좀 더 정교한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
 - 취업 의사 정도와 취업 가능 정도 측면에서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
 -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업대책 수립을 위해 사실상실업자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추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미국의 보조지표 : 미국 노동통계청(BLS)은 공식적으로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 U1~U6’를 발표하고 있음

- U1 : 15주 이상 장기 실업자
- U2 : 실직자 혹은 임시고용이 종료된 자
- U3 : 국제기준의 실업자
- U4 : U3 + 구직단념자
- U5 : U3 + 한계근로자(구직단념자 포함)
- U6 : U3 + 한계근로자 + 추가취업희망자

2. 청년 체감실업의 특징 분석

1) 정의

○ (광의의 사실상실업자) 장·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물론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자를 포함

- **실업자** : 취업자(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혹은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가족일을 도운 자)가 아니면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국제 표준의 실업자 정의임

-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 당장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잠재인력임

- **취업준비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에 통학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자

· 취업 의사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취업준비자면서 동시에 구직단념자일 수도 있음

- **취업무관심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통학하지 않고, 취업의사도 없으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담당하지도 않는 자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1) 통계청은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를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로 정의

○ (협의의 사실상실업자) 협의의 사실상실업자는 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합으로 정의

- 협의·광의를 나누는 기준 : 실업자와 비슷한 처지일수록, 즉 취업의사가 뚜렷할수록 '협의'로 분류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 강도(強度)는 구직단념자 > 취업준비자 > 취업무관심자 순서임

- 사실상실업자(협의) : 실업자 + 구직단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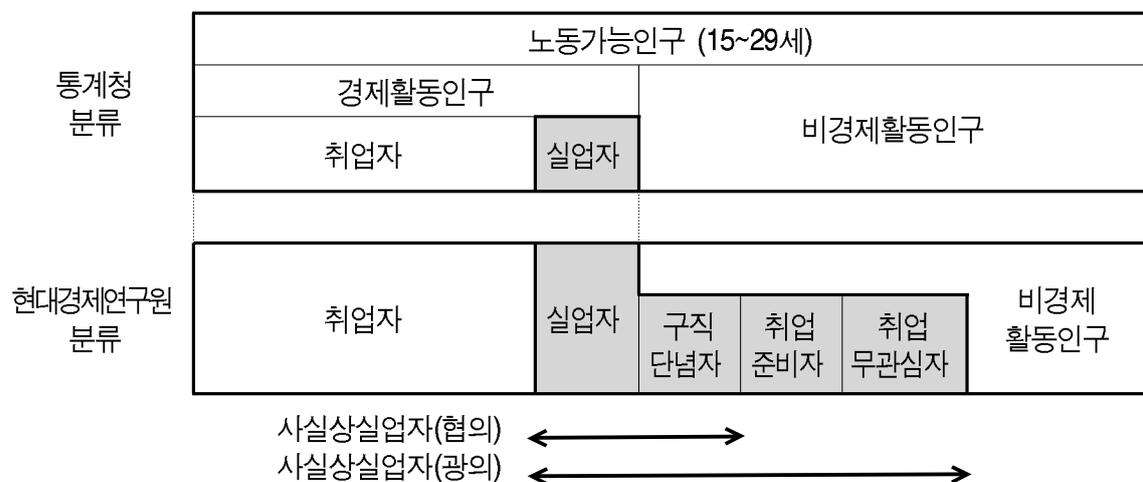
- 사실상실업자(광의) : 실업자 + 구직단념자 + 취업준비자 + 취업무관심자

○ (체감실업률) '취업자 및 사실상실업자' 중에서 사실상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체감실업률(협의) : $\frac{\text{사실상실업자(협의)}}{\text{취업자+사실상실업자(협의)}}$

- 체감실업률(광의) : $\frac{\text{사실상실업자(광의)}}{\text{취업자+사실상실업자(광의)}}$

< 청년 경제활동인구 구성 >



2) 청년 체감실업의 특징2)

○ (고용률 급락)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률이 하락

- 취업자수가 청년수보다 더 빨리 감소하면서 고용률($\frac{\text{취업자수}}{\text{청년수}}$)이 2003년 44.4%에서 2011년 40.5%로 3.9%p 하락
 - 청년수는 연평균 1.0%씩(1036.8만→959.8만) 줄어든 반면, 취업자수는 연평균 2.1%씩(460.6만→389.8만) 더 빨리 감소
-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기 때문이며, 특히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자인 비경활인구의 증가가 주요 요인임
 - 비경활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연평균 7.4%씩(6.5만→11.5만) 증가했고, 취업준비자도 5.7%씩(26.8만→41.9만) 늘어남
 - 통학 인구가 연평균 0.7%씩(367.5만→388.0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육아가사 인구가 7.8%씩(77.3만→40.2만)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률 하락의 주요 요인은 사실상실업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청년 사실상실업자(광의) 추이 >

(단위: 천명 %)

연월	청년 전체	취업자	실업자 (A)	구직단념자				비경제 활동인구	체감 실업자 (A+D+E)	실업률	체감 실업률	고용률
				구직 단념자 (B)	취업 준비자 (C)	B+C (D)	취업 무관심 자(E)					
2003	10,368	4,606	401	65	268	314	275	5,361	990	8.0	17.7	44.4
2007	9,855	4,202	328	66	417	459	260	5,325	1,046	7.2	19.9	42.6
2011	9,598	3,888	324	115	419	489	288	5,386	1,101	7.7	22.1	40.5
증가율	-1.0	-2.1	-2.6	+7.4	+5.7	+5.7	+0.6	+0.1	+1.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2011년은 1~10월의 평균임. 증가율은 2003~2011년의 연평균 증가율임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는 겹칠 수 있음

2) 광의의 사실상실업자를 기준으로 분석

○ (사실상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실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사실상실업자(광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0만 명을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지속

- 청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자는 2003년 40.1만 명에서 2011년 32.4만 명으로 연평균 2.6%씩 감소
 - 반면 사실상실업자(광의)는 연평균 1.3%씩(99.0만→110.1만)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체감취업자가 상당수 존재
 - 2011년(1~10월) 현재 구직단념자이거나 취업준비자인 청년은 48.9만 명, 취업무관심자는 28.8만 명으로, 사실상실업자(광의) 110.1만 명의 70.6%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
- 2003~2007년에는 취업준비자가 급증한 반면, 2007~2011년(세계금융위기)에는 구직단념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취업준비자는 2003~2011년에는 연평균 11.7%씩 증가하였으나, 2007~2011년에는 연평균 0.1% 증가에 그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고시열풍과 공무원시험 열풍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구직단념자는 2003년 6.5만 명에서 2007년 6.6만 명으로 유지되다가, 그 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1년 11.5만 명에 이룸(2007~2011 연평균 15.6% 상승)
 - 2008~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상당수의 청년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함

○ (체감실업률 20% 시대) 청년 체감실업률(광의)은 실업률보다 3배 높은 20%대를 기록하고 있음

- 청년실업률은 2003년 8.0%, 2007년 7.2%, 2011년 7.7%로 7~8% 수준을 유지한 반면, 체감실업률(광의)은 같은 기간 17.7%, 19.9%, 22.1%로 꾸준히 상승
 - 통계청의 실업률이 청년들의 체감실업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체감실업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① 성별 특징

○ (고용률 역전) 남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성 고용률이 여성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남

- 2003~2011년 청년 남자가 연평균 0.7%씩(499.2만→472.2만) 줄어든 반면 취업자수는 2.5%씩(225.2만→183.4만) 더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45.1%에서 38.8%로 6.3%p나 급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251.1만 명에서 270.6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연평균 +0.9%)
- 한편 청년 여자는 1.2%씩(537.6만→487.6만) 줄어들고 취업자수는 1.7%씩(235.4만→205.4만) 감소하면서, 고용률이 43.8%에서 42.1%로 소폭 하락

<청년 남자 노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청년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실업률	체감실업률	고용률
2003	4,992	2,252	228	2,511	9.2	20.0	45.1
2007	4,805	1,993	200	2,620	9.1	23.0	41.5
2011	4,722	1,834	182	2,706	9.0	24.7	38.8
증률	-0.7	-2.5	-2.8	+0.9			

<청년 여자 노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청년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실업률	체감실업률	고용률
2003	5,376	2,354	172	2,850	6.8	15.4	43.8
2007	5,050	2,209	127	2,724	5.4	16.9	43.7
2011	4,876	2,054	142	2,680	6.5	19.6	42.1
증률	-1.2	-1.7	-2.4	-0.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2011년은 1~10월의 평균임. 증가율은 2003~2011년의 연평균 증가율임
 주2 : 체감실업률은 광의의 체감실업률임

○ (체감실업률) 남자는 여자보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으며, 이에 따라 체감실업률이 4%p 이상 더 높음

- 2011년 현재 청년 남자 중 사실상실업자(광의)는 60.1만 명이고, 체감실업률(광의)은 24.7%임
 - 한편 여자는 49.9만 명, 19.6%로, 남자보다 체감실업률(광의)이 5.1%p 낮음
- 남자는 여자보다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남자는 여자보다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가 많은 반면, 추가취업희망자³⁾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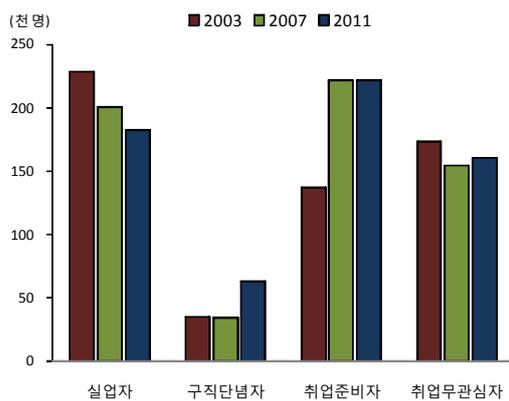
3) 추가취업희망자란 '평균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타 직

- 남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실업자나 취업준비자, 취업단념자로 남아있는 반면, 여자는 우선 단시간근로자로 취업한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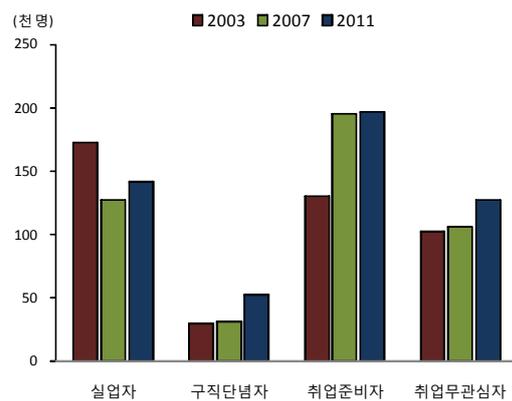
○ (경제위기 충격) 미국發 세계금융위기 중 남자보다 여자의 고용상태가 더 악화됨

- 2007~2011년 남자의 실업자수는 1.8만 명 감소(20.0만→18.2만)하였으나, 여자는 1.5만명 증가(12.7만→14.2만)
 - 이에 따라 남자 실업률은 9.1%에서 9.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여자실업률은 5.4%에서 6.5%로 상승
- 한편 여자는 취업무관심자가 늘면서 체감실업률(광의)이 더 많이 상승
 - 2007~2011년 남자의 취업무관심자는 0.6만 명(15.4만→16.0만; 연평균 +1.0%), 여자는 2.7만 명(10.0만→12.7만; 연평균 +6.2%) 증가
 - 이에 따라 남자의 체감실업률은 23.0%에서 24.7%로 1.7%p 상승한 반면, 여자는 16.9%에서 19.6%로 2.7%p 상승
- 여성에게 충격이 집중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고 및 채용에서 여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청년 남자 체감실업 추이>



<청년 여자 체감실업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2011년은 1~10월의 평균임

장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자'를 뜻함

② 연령별 특징⁴⁾⁵⁾

○ (고용률) 20대 초반(20~24세)의 고용률은 급락하는 반면 20대 후반(25~29세)의 고용률은 상승

- 20대 초반의 고용률은 2003년 51.8%에서 2011년 43.5%로 8.3%p나 하락
 - 20대 초반 청년수는 연평균 2.8%(334.9만→266.3만) 감소한 반면, 취업자수는 연평균 4.9%(173.5만→116.0만)로 훨씬 더 빨리 감소
- 반면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2003년 67.5%에서 2011년 69.7%로 오히려 상승
 - 20대 후반 청년수는 연평균 0.9%(385.4만→372.5만)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연평균 0.5%(260.0만→249.9만) 감소

<20대 초반의 노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청년 전체	고용률			실업률	체감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2003	3,349	1,735	184	1,430	9.6	21.1	51.8
2007	2,735	1,313	126	1,296	8.7	24.0	48.0
2011	2,663	1,159	121	1,382	9.5	28.5	43.5
증율	-2.8	-4.9	-5.1	-0.4			

<20대 후반의 노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청년 전체	고용률			실업률	체감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2003	3,854	2,600	176	1,078	6.3	13.9	67.5
2007	3,918	2,679	180	1,059	6.3	17.5	68.4
2011	3,585	2,499	175	912	6.5	18.0	69.7
증율	-0.9	-0.5	-0.1	-2.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2011년은 1~10월의 평균임. 증가율은 2003~2011년의 연평균 증가율임
 주2 : 체감실업률은 광의의 체감실업률임

○ (체감실업률)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체감실업률(광의) 격차가 7.2%p에서 10.5%p로 더 벌어짐

- 2003년 20대 초반의 체감실업률은 21.1%로 20대 후반의 13.9%보다 7.2%p 높음
- 그런데 2011년에는 각각 28.5%와 18.0%로, 격차가 10.5%p로 더욱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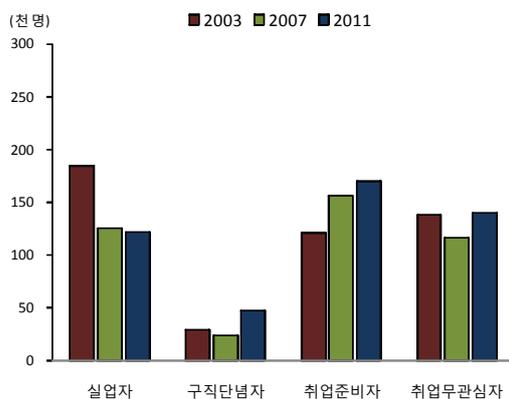
4) 15~19세 청년의 사실상실업자(광의)는 9.6만명(335.1만명의 2.9%)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
 5) 20대 초반(20~24세)과 후반(25~29세)을 구분하는 이유는 ①청년을 정의하는 세계기준이 24세까지이고 ②대학생의 상당수가 20~24세에 집중되는 등 특징이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

- 20대 초반의 고용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고학력에 따른 학생수 증가요인도 있지만,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임
- 2011년 현재 20대 초반 266.3만 명 중 14.0만 명(5.3%)이 취업무관심자이고, 20대 후반 358.5만 명 중에서는 11.4만 명(3.1%)이 취업무관심자임
- 20대 초반 청년의 경우, 학교나 교육훈련, 가사·보육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의지하여 사는 비중이 높음
- 취업능력 향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향후 장기실업자로 전락할 우려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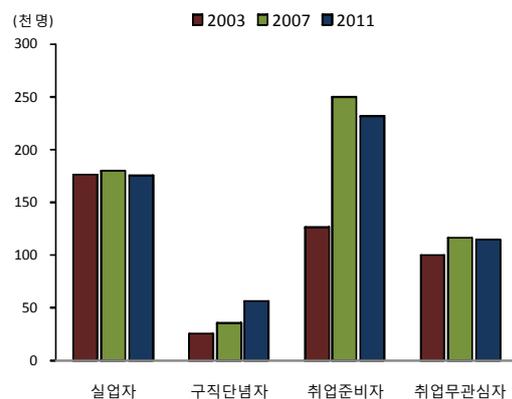
○ (경제위기 충격) 세계금융위기로 20대 초반의 체감실업률(광의)이 28.5%까지 치솟는 등 20대 후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음

-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2007년 6.3%에서 2011년 6.5%로, 체감실업률(광의)은 17.5%에서 18.0%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 반면 20대 초반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8.7%에서 9.5%로, 체감실업률(광의)은 24.0%에서 28.5%로 급등
-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 초년생인 20~24세가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로 밀려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0대 초반의 체감실업 추이>



<20대 후반의 체감실업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2011년은 1~10월의 평균임

③ 학력별 특징

○ (고용률) 고졸 이하의 고용률은 급락하는 반면 대졸 이상의 고용률은 상승

- 재학생을 포함한 고졸 이하 청년의 고용률은 2003년 36.6%에서 2011년 20.7%로 15.9%p나 하락
 -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수는 2003~2011년 연평균 3.5%씩(511.7만→385.3만)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10.1%씩(187.1만→79.8만) 급격히 감소
- 재학생을 제외한 고졸 이하 청년만 고려할 경우, 고용률은 2003년 64.4%에서 2011년 55.8%로 8.6%p 감소하여 감소폭이 여전히 큼
 - 재학생을 제외한 청년수는 연평균 8.7%씩(289.0만→139.6만)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10.3%씩(186.0만→77.8만) 감소
- 반면 대졸 이상 청년의 고용률은 2003년 52.1%에서 2011년 53.8%로 소폭 상승
 - 2년제 대학 이상의 청년수는 2003년 525.1만 명에서 2011년 576.5만 명으로 연평균 1.1%씩 증가하였고, 취업자수는 273.5만 명에서 309.0만 명으로 1.5%씩 증가

<청년 고졸이하 노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청년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실업률	체감실업률	고용률
2007	4,233	1,159	104	2,971	8.2	19.9	27.4
2011	3,853	798	76	2,979	8.7	23.7	20.7
증률	-3.5	-10.1	-9.0	-0.4			

<청년 대졸이상 노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	청년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실업률	체감실업률	고용률
2007	5,622	3,044	224	2,354	6.9	19.9	54.1
2011	5,745	3,090	249	2,407	7.4	21.6	53.8
증률	+1.1	+1.5	+0.5	+0.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1 : 2011년은 1~10월의 평균임. 증가율은 2003~2011년의 연평균 증가율임

주2 : 체감실업률은 광의의 체감실업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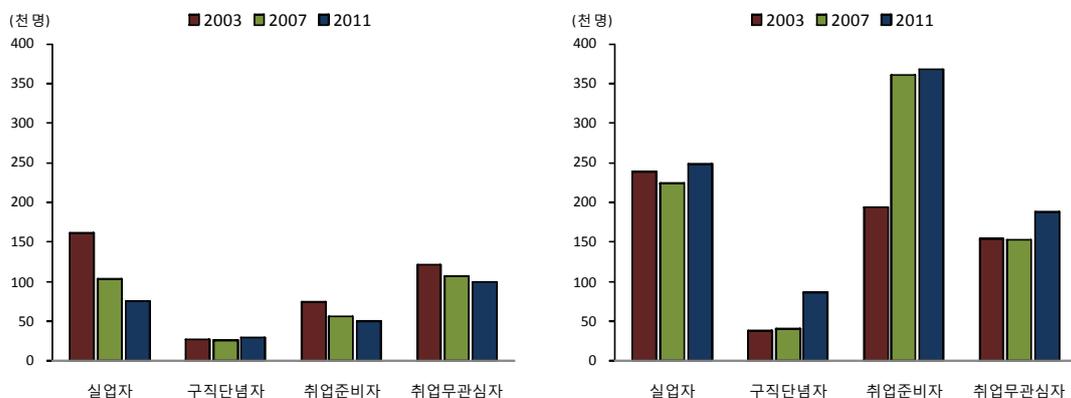
○ (체감실업률) 고졸 이하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대졸 이상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남

- 2003년 고졸 이하 청년과 대졸 이상 청년의 체감실업률(광의)은 각각 16.8%, 18.3%로 고졸 이하 청년이 더 낮았으나, 2011년에는 각각 23.7%, 21.6%로 역전
- 재학생을 제외한 고졸 이하의 청년만 고려하더라도, 체감실업률이 16.7%에서 23.7%로 7.0%p나 급등
 - 이는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고졸 이하 청년의 고용상황이 모두 악화되었음을 뜻함

○ (경제위기 충격) 세계금융위기 중 고졸 이하 청년의 고용상황은 대졸 이하 청년보다 더 악화됨

- 고졸 이하 청년(재학생 포함)의 실업률은 2007년 8.2%에서 2011년 8.7%로, 체감실업률(광의)은 19.9%에서 23.7% 상승
 - 재학생을 제외한 고졸 이하 청년의 경우, 실업률은 8.2%에서 8.5%로, 체감실업률(광의)은 20.0%에서 23.7%로 상승
 - 한편 2년제 대학 이상 청년의 실업률은 6.9%에서 7.4%로, 체감실업률(광의)은 19.9%에서 21.6%로 소폭 상승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졸 청년들이 더 많이 해고되어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비자로 이동한 것으로 보임

<청년 고졸이하 체감실업 추이 >청년 대졸이상 체감실업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2011년은 1~10월의 평균임

3. 시사점

○ (총괄) 청년 중 사실상실업자가 115.5만 명을 넘어서고 체감실업률이 23.2%에 이르는 만큼, 사실상실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고용대책이 시급

- 이를 위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사실상실업자를 포괄하는 보조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고용대책) 사실상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대책 마련

- 구직단념자 혹은 취업준비자 : 취업 의사가 뚜렷한 청년들로서, 향후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1순위 정책대상자임

· 49.8만 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⁶⁾ 중 11.0만 명은 당장 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나머지 38.8만 명은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취업할 의사가 있음

· 당장 취업 의사가 있는 1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얹은 이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3.5만명),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8만명),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1.0만명) 등임

· 구직단념자·취업준비자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교육·기술·경험 축적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책방안 모색

- 취업무관심자 : 청년 중에서 취업, 학업, 직업훈련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는 취업무관심자가 증가할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취업무관심자(NEET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 영국 등을 벤치마크 하여, 이들을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대책 마련

○ (경제위기 충격) 경제위기 때에는 평소와 다른 청년실업대책 마련

- 성별 : 평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체감실업이 심각하나, 경제위기 시에는 여자가 더 큰 충격을 받음

6)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2011년 4년치 데이터의 평균을 사용

- 경제위기 시 청년 여자는 남자보다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아예 구직을 단념(구직단념자)하거나 취업 자체를 포기(취업무관심자)하는 경우도 많음
- 해고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 차별을 시정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

- **연령·학력별** : 연령별로는 20~24세 청년이,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청년이 평소에도 체감실업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때 고용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단의 고용대책이 필요함

○ (보조지표 개발) 정부는 사실상실업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청년 고용대책 수립에 기여해야

-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협의의 사실상실업자(실업자+구직단념자)와 광의의 사실상실업자(협의+취업준비자+취업무관심자) 2개로 정의하였으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조지표를 추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예) 사실상실업자1 = 실업자 + 구직단념자
 사실상실업자2 = 사실상실업자1 + 취업준비자
 사실상실업자3 = 사실상실업자2 + 취업무관심자
 사실상실업자4 = 사실상실업자3 + 비자발적 비정규직

- 청년 체감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사실상실업자 관련 보조지표 마련을 서두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임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김동빈 연구원 (2072-6215, dbkim@hri.co.kr)

<별첨> 통계표 : 청년 사실상실업자

1. 전체 사실상실업자

(단위 : 천명, %)

연월	청년 전체	취업자	실업자 (A)	구직 단념자				비경제 활동인구	사실상실업자		실업률	체감실업률		고용률
				구직 단념자 (B)	취업 준비자 (C)	B거나C (D)	취업 무관심자 (E)		협의 (A+B)	광의 (A+D+E)		협의	광의	
2003	10,368	4,606	401	65	268	314	275	5,361	466	990	8.0	9.2	17.7	44.4
2004	10,141	4,578	412	71	297	348	305	5,151	483	1,065	8.3	9.5	18.9	45.1
2005	9,920	4,450	387	65	351	400	306	5,083	452	1,092	8.0	9.2	19.7	44.9
2006	9,843	4,270	364	64	413	456	277	5,209	428	1,097	7.9	9.1	20.4	43.4
2007	9,855	4,202	328	66	417	459	260	5,325	394	1,046	7.2	8.6	19.9	42.6
2008	9,822	4,084	315	76	455	496	255	5,423	391	1,066	7.2	8.7	20.7	41.6
2009	9,780	3,957	347	96	429	488	294	5,477	443	1,129	8.1	10.1	22.2	40.5
2010	9,705	3,914	340	120	442	516	260	5,451	460	1,116	8.0	10.5	22.2	40.3
2011	9,598	3,888	324	115	419	489	288	5,386	439	1,101	7.7	10.1	22.1	40.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주 : 2011년은 1~10월의 평균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5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2월2일	12월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04	1.97	-0.07%p
	엔/달러	92.93	88.43	81.19	77.76	77.66	-0.10¥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460	1.3414	-0.0046\$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019	11,998	-21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644	8,665	2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38	3.35	-0.03%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31.5	1,131.4	-0.1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916.0	1,912.4	-3.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2월2일	12월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100.51	99.34	-1.17\$
	Dubai	78.06	73.14	88.80	107.56	107.97	0.41\$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13.55	307.95	-5.6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